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2021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GENDA

2021 한인 시민 행동 안건

KAC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시민참여센터

후원

H MART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한솔
HANSOL

강한가족의료원 · 뉴욕여행자건강클리닉
KANGHAN FAMILY HEALTH CENTER
NEW YORK TRAVELER'S HEALTH CLINIC

DASHING DIVA

KACE 시민참여센터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시민참여센터는 1996년에 설립된 이래 한인사회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비정파, 비영리 단체로서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220,000한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 한인 시민 행동 안건은 우리 지역사회 의제들에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 선출직 정치인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한인들의 시민참여를 높이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KACE Introduction 소개

Established in 1996, th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a non-partisan, not-for-profit organization devoted to advocating civil righ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ased in New York City, KACE serves more than 220,000 Korean Americans in the tri-state area.
Our 2021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genda is prepared to assist Korean Americans in understanding the issues affecting our communities and to promote civic engagement by providing the tools for Korean Americans to contact their elected officials.

IMMIGRATION REFORM

Support H.R. 1177 & S. 348: US Citizenship Act of 2021

Issue: Immigrants come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freedom, economic opportunity, and the chance to create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y have crossed oceans and continents to achieve the American dream. The backbone of America is built off of the hard work of immigrant workers who have made lasting contributions to our country.
Unfortunately, our current immigration system is outdated and ineffective. The system separates families, hinders companies from hiring workers with essential skills, creates long waiting lines, and most of all, gives little to no chance to the millions of hardworking undocumented workers who pay taxes but are forced to live in the shadows.

What We Need:

We need a new immigration system that will:

- Keep families together
- Protect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 immigrants
- Provide Dreamers with a track to U.S. Citizenship
- Grow our economy
- Restore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 Family, Justice, Freedom, and Diversity

이민개혁

하원 법안H.R.1177 & 상원법안 S. 348을 지지해주십시오: 2021 미국 시민권 법안

쟁점 사안: 이민자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경제적 기회, 자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옵니다. 일하고, 배우고, 살기 위해 바다와 대륙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유입으로 큰 혜택을 입어왔고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민 시스템은 낡고 비효율적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지내게 하고, 회사들이 필수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막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합법적인 신분없이 그늘에 숨어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한다.
-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이민자들의 자유를 보호한다.
- DREAMER들에게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족, 정의, 자유, 다양성과 같은 미국의 가치를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

Support H.R.1177 & S. 348:
US Citizenship Act of 2021

President Biden disclosed his plan to overhaul the immigration system on his first day of office. In February 2021,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was introduc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Representative Linda Sánchez (CA- 38) and in the Senate by Senator Robert Menendez (D-NJ). The Act seeks to modernize the nation's immigration system, boost the economy, and provide a pathway to citizenship for millions of undocumented immigrants. Below are some key points of the bill.

- Bill allows undocumented individuals to apply for temporary legal status with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a green card after five years if they pass criminal and national security background checks and pay their taxes.
- Dreamers, TPS holders, and immigrant farmworkers who meet specific requirements are eligible for green cards immediately under the legislation
- After three years, all green card holders who pass additional background checks and demonstrate knowledge of English and U.S. civics can apply to become citizens.
- Applicants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or before January 1, 2021.
- The bill reforms the family-based immigration system by clearing backlogs, recapturing unused visas, eliminating lengthy wait times, and increasing per-country visa caps.
- Bill eliminates the so-called "3 and 10-year bars", and other provisions that keep families apart.
- The bill allows immigrants with approved family-sponsor ship petitions to join family in the United States on a temporary basis while they wait for green cards to become available.
- The bill codifies and funds the President's $4 billion four-year inter-agency plan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of migration in the region, by increasing assistance to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conditioned on their ability to reduce the endemic corruption, violence, and poverty that causes people to flee their home countries.

TO SUPPORT THIS BILL

President Biden sent the bill to Congress on his first day of office to show his strong ambition to deliver long-waited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However, he cannot do it by himself.

Your participation is crucial to ensure this bill gets passed! Please contact your elected officials to show your support for the bill!

하원 법안H.R.1177과 상원법안 S. 348을 지지해주십시오: 2021 미국 시민권 법안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1일, 취임 첫 날에 이민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에 미국 시민권 법안을 린다 산체스 의원(캘리포니아주, 38선거구)이 연방하원, 그리고 연방 상원에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뉴저지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이민정책을 현대화하고 경기를 부양하며 수백만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범죄경력과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 DREAMER들과 임시보호신분(TPS)을 가진 사람들,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 노동자들은 이 법안에 의거하여 즉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3년 후, 추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기본적인 영어와 미국 국민윤리 지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법안은 미사용 비자를 재수용하고 긴 대기시간을 없애며 각 나라에 할당된 비자 숫자를 늘림으로써 가족 초청 이민정책을 개혁하게 됩니다.
- 이 법안은 소위 말하는 "3-10년입국제한"과 가족을 분리시키는 다른 조항들을 없앱니다.
- 이 법안은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이 통과된 사람들이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허가합니다.
- 이 법안은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혼두라스와 같은 나라들이 자국민들이 고국을 떠나게 만드는 토착적인 부패, 폭력, 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늘림으로써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 4년간 4조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후원하기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포괄적이민개혁에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위해 취임 첫 날에 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이 일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에게 알리십시오.

Visit ***goaction.net*** to send a message to your elected officials today!

***goaction.net*을 방문하여 오늘 당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Redistricting 2021/2022:
Beware of Gerrymandering

Redistricting

Every decade,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conducts a census to gather information on U.S. residents. After the census, every state in the country undergoes a process called redistricting which redraws the boundaries of State legislative districts and Congressional districts. The redrawing of districts is done to account for shifts in population and community changes based off of the data gathered by the most recent census.

Redistricting has tremendous impacts to both voters and lawmakers. Newly drawn districts can influence who wins an election, how political power is distributed, which communities are represented, and ultimately, which laws are passed. The redistricting process creates a powerful incentive for politicians to manipulate district lines for their personal gain.

Issue - Gerrymandering

Gerrymandering is a practice which intends to manipulate district boundaries to give one political party an unfair advantage over their rivals. Additionally, gerrymandering may sometimes guarantee legislative majorities – and their own job security- that enable political control over policy-making decisions for the next decade.

What We Need:

Generally, districts are drawn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Compactness - measure of a district's geometric shape.
- Contiguity - all parts of the district must be connected.
- Adhering to pre-existing political subdivisions such as city and county lines.
- Preserving communities of interest such as neighborhoods or regions where the residents have common interests.

As a part of Asian American Community, we, Korean Americans, need to keep our community undivided and ensure our voting power does get diluted by gerrymandering. To achieve this, we ask for a fair and transparent redistricting process.

Please check your state's redistricting process and get involved by sending your comments and concerns to your state legislators.

2021/2022 선거구 재조정:
게리맨더링을 조심하십시오.

선거구 재조정

매 10년마다, 인구조사 후에 미국의 주들은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변화나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각 주의 상원, 하원 선거구의 경계가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 선거구의 조정은 유권자와 입법가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지,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어떤 지역사회가 대변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법이 통과가 되는 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쟁점 사안: 개리맨더링

개리먼더링은 한 정당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에 비해 불공평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리먼더링은 향후 10년 동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의회에서의 지배력- 자신들의 직업의 안정성과 함께-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

일반적으로, 선거구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간편성 – 선거구의 지리적 형태는 간단해야 한다.
- 연속성 – 선거구내의 모든 지역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시, 카운티 경계와 같은 기존의 행정구역에 부합할 것.
- 거주민들이 공통의 이해/이익을 가지고 있는 동네 또는 지역들과 같은 이익 공동체를 유지할 것.

미국에 살고 있는 동양인 공동체의 일부로서 우리 한인들은 우리 지역사회가 분리되지않고 우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지않도록 유지해야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선거구 조정 과정을 알아보고 지역구의 입법자들에게 여러분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전달하십시오.

NY Redistricting 2021 뉴욕 선거구 재조정

New York Redistricting Changes Amendment (2021)

The New York Redistricting Changes Amendment will be put on the ballot in this year's November 2, 2021, General Election. The ballot measure will ask voters whether they support, or do not support, an amendment to the New York constitution that would change how New York conducts redistricting.

The ballot measure asks voters whether they support or oppose:

- (a) change the vote thresholds for adopting redistricting plans when one political party controls both legislative chambers.
- (b) require that incarcerated persons be counted at the place of their last residence for redistricting.
- (c) require the state to count residents, including people who are residents but not citizens, should the federa census fail to do so.
- (d) remove the block-on-border requirement for Senate districts.
- (e) cap the number of state senators at 63.
- (f) move up the timeline for redistricting and repeal inoperative language.

SUPPORT THIS BALLOT MEASURE

To make New York's redistricting procedure fair and transparent, we need your support!

If you live in New York, please contact your elected officials to show your support for the ballot measure!

뉴욕 선거구 조정 변경 개정안 (2021)

뉴욕 선거구 조정 변경 개정안이 2021년 11월 2일 예비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입니다. 이 찬반투표는 유권자들에게 뉴욕주가 어떻게 선거구 조정을 하는지를 결정할 뉴욕주 헌법의 수정을 찬반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 찬반투표는 유권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묻게 됩니다.

- (a) 한 정당이 상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 선거구 조정 계획을 채택하는데 있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찬성표의 숫자를 바꿀 것인가.
- (b)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현재 복역중인 수감자를 이전 거주지의 주민으로 간주할 것인가.
- (c) 연방 인구조사가 시민권자가 아닌 거주자를 포함시키지않을 경우, 주 정부는 그러한 거주자를 포함할 것인가.
- (d) 상원의원 선거구의 경우 블럭 온 보더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
- (e) 주 상원의원 수를 최대 63으로 제한 할 것인가.
- (f) 선거구 조정 시기를 앞당기고 효력이 없는 표현을 삭제할 것인가.

이 찬반투표를 지지하십시오

뉴욕의 선거구 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뉴욕에 거주하신다면, 여러분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이 찬반 투표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Visit ***goaction.net*** to send a message to your elected officials today!

***goaction.net*을 방문하여 오늘 당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MULTILINGUAL DISASTER RELIEF INFORMATION

다중언어로 된 재난 지원 정보

Issue: In response to COVID-19, federal and state officials all across the country raced to provide communities with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ease and relief programs to support families and businesses. Unfortunately, this crucial information was only provided in English, putting non-English speakers at greater risk of not receiving much needed government assistance. Due to the lack of translated materials, minority community organizations had to learn about these programs and then prepare their own materials to disseminate the information to their communities.

What we need:
Disaster response and relief programs/systems must be able to provide all crucial information in several languages to ensure that everyone has access to vital and potentially life-saving information.

쟁점 사안: 코비드-19가 미 전역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방과 주 정부의 관료들은 코비드-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정과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해 질병과 구제안에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정보가 영어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소수민족 사회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미래에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중 언어로 제공하는 재난 대책과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Support H.R. 1009: COVID-19 Language Access Act

On February 11, 2021, Congressmember Grace Meng (NY-6) introduced H.R. 1009: COVID-19 Language Access Act. This act proposes to require all federal government agencies to translate all written COVID-19 related materials into multiple languages. KACE supports this act and believes COVID-19 Language Access Act should be passed in the 117th Congress and it also be expanded to any disasters that may hit the U.S. in the future. We must have our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agencies to translate their disaster related information into multiple languages.

Join to Make The Multilingual Disaster Information System

To ensur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agencies provide multi-language disaster-related information, contact your federal and state representative and urge them to pass legislation that provides crucial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Please contact your federal and state elected officials to show your support for the multilingual disaster information system.

H. R. 1009를 지지하십시오: 코비드-19 언어 접근 법안

2021년 2월 17일에 그레이스맹 의원이 (뉴욕, 6선거구) H.R. 1009 코비드-19 언어 접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은 대중들을 위해 발간되는 코비드-19 관련 정보를 다중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법안에 찬성하며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재난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같은 법안이 116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어 54명의 하원의원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19 언어 접근 법안이 117대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미국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도 적용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과 주 정부의 모든 기관이 재난 관련 정보를 다중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재난 정보 시스템을 다중언어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연방과 주 정부 기관들이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여 다중언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다중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방과 주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당신이 다중언어 재난정보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Visit ***goaction.net*** to send a message to your elected officials today!

goaction.net**을 방문하여 오늘 당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Issue:

The Korean War has not officially ended. The war left millions of families divided for the past 70 years. Among the separated families, approximately 300,000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day. Since 1985,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 has held 21 family reunions. However, Korean Americans who may have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have not been allowed to participate. Many first-generation divided families residing in the U.S. are in their 70s – 90s and time is of the essence for them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What we nee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eed to work together to help Korean American families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residing in North Korea.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826) and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 (H.Res. 294)

On February 8, 2021, Congresswoman Grace Meng (D-NY) and Congressman Van Taylor (R-TX) introduced the bipartisan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826) which urges the U.S. Secretary of State to consult with his or her South Korean counterpart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Korean Americans to participate in future reunions, including by video. It also encourages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 work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identify those same opportunities. [See the bill here – Link is not available now]

Also, on April 8, 2021, Congresswoman Karen Bass (D-CA) introduced a resolution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 (H.Res. 294).

SUPPORT THIS BILL

Your participation is absolutely crucial to help pass this legislation!

Please contact your elected officials to show our support for the bill!

쟁점 사안:

한국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의 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이산가족들 가운데 약 300,000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5년 이래,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은 21회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그 상봉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의 1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70-90대로 하루 속히 헤어진 가족과 상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

우리는 미국과, 한국, 북한 세 나라가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H.R.826)과 이산가족 상봉 권장 결의안 (H.Res.294)

2021년 2월 8일, 국회의원 그레이스맹 (뉴욕주, 민주당)과 반 테일러 (텍사스주, 공화당)은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한국의 상대 정치인과 의논하여 영상으로 상봉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미래의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의논하도록 촉구하는 비정파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에대한 특별 사절단도 이와 같은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한인 사회와 협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8일에는 캘리포니아의 캐런 배스 하원의원 (민주당-캘리포니아)이 한인 이산 가족들의 북한 가족들과의 상봉을 권장하는 결의안 (H.Res. 294)를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미국정부가 한국, 북한 정부와 협조하여 미국내 한인 이산 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주십시오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돕기 위해서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에게 알리십시오.

Visit ***goaction.net*** to send a message to your elected officials today!

***goaction.net*을 방문하여 오늘 당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ADOPTEE CITIZENSHIP 입양아의 시민권획득

Issue: The United States adopts more children overseas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However, many adoptees are not eligible for naturalization despite living in the U.S. since childhood.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etween 1955 and 2015, 112,000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by U.S. citizens. Out of the 112,000 Korean children adopted, approximately 20,000 adoptees lack any records of U.S. citizenship.

Due to loopholes in public policy, countless families live under the threat of abrupt separation and deportation. In 2012, a 37-year-old man named Phillip Clay was deported to his birth country after having liv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he was 8 years old. He had no knowledge of the country's language or culture and a few months after his arrival, he took his own life. A similar situation occurred in 2016 with 41-year-old Adam Crasper. He was deported from his home state, leaving behind a wife, three daughters, and the only country he has ever known. As of 2016, 10 Korean adoptees have been deported from the U.S. to South Korea.

What we need: To address loopholes and give adoptees the opportunity for U.S. citizenship, federal legislation needs to be passed to allow any individuals born outside of the U.S., who were adopted by a U.S. citizen before the adoptee was 18 years old, automatic U.S. citizenship.

쟁점 사안: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입양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양아들이 어려서부터 미국 가정에서 자라는데도 시민권 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되어 오는 입양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95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 시민들에게 입양된 112,000명의 입양아 가운데 약 20,000명이 미국 시민권 획득을 하는데 있어서 기록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공공 정책의 헛점으로 인해 수많은 죄없는 가족들이 갑작스런 이별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37세였던 필립 크레이라는 젊은이는8살 때 떠나온 출생국인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는 몇 달 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사하게 2016년에 또 다른 입양아 출신 41세 아담 크레스퍼는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둔채 워싱턴 주에서 추방당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국 출신 입양아는 10명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헛점을 바로잡고 입양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우리는 외국에서 태어나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 의해 입양되어 온 모든 입양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이 필요합니다.

H.R.1593/S.967: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Since 1999, there have been multiple bills introduced to resolve the foreign adoptees' citizenship issue. In the 117th Congress, Congressmember Adam Smith (D-WA) introduced H.R. 1593 –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Additionally, in the U.S. Senate, Senator Roy Blunt (R-MO) introduced the same bill, S. 967.

The bill provides for an automatic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 certain individuals adopted by a U.S. citizen. An individual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hall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if the individual (1) was adopted by a citizen before becoming 18 years old, (2)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itizen parent's custody pursuant to lawful admission before becoming 18 years old, (3) never acquired citizenship before this bill's enactment, and (4) was lawfu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on this bill's enactment date.

To encourage Congressmembers to pass 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we need your voice! Please contact your federal elected officials to show our support for the bill and encourage them to co-sponsor H.R. 1593 and S. 967.

H.R.1593/S.967: 2021 입양아 시민권 법안

1999년 이래로 외국에서 입양되어온 아동들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미연방하원의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민주당) 의원과 존 커티스 (유타주, 공화당) 의원은 공동으로 2021 입양아 시만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연방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몬타나주,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 같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개인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개인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18새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입양되어야 하며, (2)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살아야 하며, (3)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시민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4)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117대 의회에서 (2021-2022) 입양아 시민권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에게 알리고 이 법안을 후원하게 해주세요.

Visit ***goaction.net*** to send a message to your elected officials today!

goaction.net**을 방문하여 오늘 당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Ending the Korean War

Issue: From June 25, 1950, through July 27, 1953, the Korean Peninsula became the first battleground of the Cold War. The death toll from the three-year conflict resulted in 1.2 million South Korean deaths, 1 million North Korean deaths, 36,500 U.S. troop deaths, and 600,000 Chinese troop deaths.

On July 27, 1953,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uth Korean State unofficially ending the Korean War. The armistice created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and ended hostilities in Korea by armed forces. Since a peace treaty has never been sign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he war technically continues to this day.

There have been constant armed conflicts along the DMZ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continues to heighten ten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During the Korean War, millions of families were separated and to this day cannot meet their family members who live across the DMZ. Additionally, tensions continue to heighten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hat we need:

To bring peace in the region and make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free, we need a peace treaty that will officially end the Korean War and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R.3446 To review current restrictions on travel to North Korea, call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for other purposes.

On May 20, 2021, Congressman Brad Sherman (D-CA) introduced H.R. 3446 which mandates the Secretary of States to review and report current restrictions on travel to North Korea within 180 days. The bill also calls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What we are asking:

We ask President Biden to actively negotiate wi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end the Korean War and br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northeast region by removing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Support H.R. 3446 to end the Korean War and br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Your participation is necessary. Please contact President Biden, Vice-President Harris, and your federal elected officials to ask them to begin negotiating a peace treaty that will officially end the Korean War.

한국전쟁의 종식

쟁점 사안: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는 미소 냉전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3년간의 전쟁 동안 남한에서는 1백 20만명, 북한에서는 1백만의 사망자, 3만 6천 5백명의 미군 사망자, 60만명의 중국 군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북한, 중국, 미국은 남한 정부의 복구를 위해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휴전협정은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했고 한반도에서 무장 세력들 간의 적대적 행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에는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북한 사이 휴전선 부근에서는 끊임없이 무력 출동이 일어나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수백만의 가족들이 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 휴전선 너머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남한, 북한, 미국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할 평화협정이 필요합니다.

북한 여행 제한 재고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 요청 법안 (H.R. 3446)

2021년 5월 30일 브레드 셔면 (D-CA)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여행 재한 재고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요청하는 법안 (H.R.3446)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80일 이내에 북한 여행 제한의 실효성을 리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연방 국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평화 협정을 위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을 끝내고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남북한 정부와 협상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북한 여행 제한 재고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 요청 법안 (H.R. 3446)을 지지하십시오.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당신의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한국전쟁을 끝낼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십시오.

Visit *goaction.net* to send a message to your elected officials today!

*goaction.net*을 방문하여 오늘 당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1일 1달러 드림펀드 캠페인

kace.org/support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온라인 후원을 하시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여 시민참여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센터 후원안내

시민참여센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기금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금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한인 정체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 양성, 그리고 지역 사회의 현안에 대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연방 국세청 IRS에 등록된 501(c)(3) 비영리기관입니다.
후원과 기부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후원

kace.org/후원하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자동이체 ACH Payment
- 크레딧 카드 Credit Card
- 수표 Check (Make payable to KACE)
- 페이팔 PayPal

DREAM FUND FOR KACE
1 DOLLAR A DAY DONATION

신청서와 체크를 보내실 주소
163-10 Northern Blvd. #307 Flushing, NY 11358
후원문의 (347) 766-5223 | info@kace.org

KAC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시민참여센터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NJ Office: 185 Bridge Plaza N, Suite 306, Fort Lee, NJ 07024

KACE.org/www.facebook.com/kaceforcommunity/(347-766-5223)